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4. 5. 4~2014. 5. 12

출장지: 스위스, 제네바

출장자: 김대중, 김미정, 오지영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2. 출장기간: 2014. 1. 8~1. 20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오지영	

4. 출장목적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인프라(5th Master plan on NGIS Policy 2013~2017, Experience on GI Policy and SDI)를 발표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간정보정책 토론 및 논의
- 국토연구원에서 기획한 한국관 전시부스에 대해 진행을 담당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대해 전시, 홍보하여 한국공간정보산업의 지평을 확대함

II.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장소	주요 수행업무	관계자
5. 4 (일)	인천	파리 제네바		(21:55) 스위스 도착 및 전시준비	
5. 5 (일)			국제회의센터	(09:00) 한국관 전시부스 설치	Kavitha Seras (Malaysia)
			국제회의센터 hall 15	(14:00) 사전 회의 참석	Milan Konecny (Czech Republic)
			국제회의센터 Presentation Hall	(15:00)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전략 적 국외홍보를 위한 전문가회의	Siow Suan Neo (Malaysia) 박희구(가이아3D) 윤영진(LH) 등
5. 6 (화)			국제회의센터 Auditorium	(09:00) Geospatial World Forum 2014 개회식 및 총회 참가	Dr. Vanessa
			국제회의센터	(16:00) 한국관 전시부스 진행(총 괄사업, LURIS)	Kavitha Seras (Malaysia)
5. 7 (수)			국제회의센터	(09:00) 한국관 전시부스 진행(총 괄사업, LURIS)	Kavitha Seras (Malaysia)
5. 8 (목)			국제회의센터 Presentation Hall	(09:00) SDI Urban Planning 세션 발표	Milan Konecny (Czech Republic) Daniel Paull (Australia) 등
			국제회의센터 Presentation Hall	(13:30) Governance 세션 발표	Omar Al Shaiba (UAE) G.P.Singh(India) 등
			국제회의센터	(09:00) 한국관 전시부스 진행(총 괄사업, LURIS)	Kavitha Seras (Malaysia)
5. 9 (금)			국제회의센터	(09:00) 한국관 전시부스 진행(총 괄사업, LURIS)	Kavitha Seras (Malaysia)
5.10 (토)			국제회의센터	전시물 철거 및 짐정리	Kavitha Seras (Malaysia)
5.11 (일)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Presentation Hall	(09:00) 국가공간정보사업 발표 및 전시결과 정리 및 토론	이지훈(국토지리정보원) 홍성철(건기연) 윤영진(LH) 등
	제네바			(17:00) 제네바 출발	
	파리			(18:10) 파리 경유	
5.12 (일)		인천		(14:50) 인천 도착	

III. 수행사항

1. Geospatial World Forum 2014 개최식 및 총회

(1) 개최식

□ 일시 및 장소: 2014. 5. 6(화) 09:15,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Auditorium

□ 참석자: Jean Philippe Amstein(포럼 공동 주최사 Swisstopo 이사), Ueli Maurer(스위스 국방부 부장), Barbara Ryan(Group on Earth Observations 이사), Bryn Fosburgh(Trimble 부회장), Sanjay Kumar(Geospatial Media & Communications CEO), Luc Barthassat(제네바 주의원) 등

□ 주요 논의내용

포럼 공동 주최사인 Swisstopo 이사인 Jean Philippe Amstein는 공간자료와 공간정보는 현재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에서 공간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공간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함

스위스 국방부 부장인 Ueli Maurer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간정보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있어서 그 중 80%가 공간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

Group on Earth Observations 이사인 Barbara Ryan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문제,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이슈들, 증가하는 자연재해, 식량 문제와 물 위기와 같은 현재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류가 지금과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기술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함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와 개인적 이윤추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공간정보와 기술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Trimble 부회장인 Bryn Fosburgh는 공간정보는 산업적이고, 전문적이며,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말함 또한 공간정보 기술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더 정확한 공간정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함

Geospatial Media & Communications CEO인 Sanjay Kumar는 공간정보의 발달과 공간정보 산업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이 산업의 해결책으로 데이터를 이야기함 Kumar가 강조한 또 다른 트렌드는 IBM, Oracle, Google, Microsoft, Facebook, GE와 같은 IT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공간정보

관련 기업들을 흡수하였는가를 얘기하면 이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가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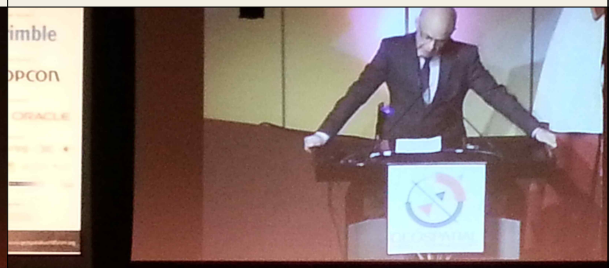
▲ Sanjay Kumar의 개회선언



▲ Bryn Fosburgh의 기조연설



▲ Luc Barthassat의 환영인사



▲ Ueli Maurer의 기조연설



(2) 총회

□ 일시 및 장소: 2014. 5. 6(월) 11:15,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Auditorium

□ 참석자: Dr. Vanessa Lawrence(Secretary General, Ordnance Survey International), Jay Freeland(President and CEO), Ewout Korpershoek(Chief Marketing Officer and Senior Vice President), Amar Hanspal(Senior Vice President - Information Modelling & Platform Group of Autodesk), Juergen Dold(President, Hexagon Geosystems)

□ 주요 논의내용

Geospatial World Forum 첫 번째 총회에서는 공간정보 산업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발전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함 주요 참가자들은 그들의 입장과 더불어 공간정보를 산업화에 끌어들이는 방법들 설명하였음

Jay Freeland(President and CEO)는 FARO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3차원이며, 이를 시각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전 세계에서 3D로 성공적으로 캡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언급하며 임야, AEC(원자력위원회), 문화유산 등 FARO의 레이저 스캐너의 가능성을 이야기 함

Ewout Korpershoek(Chief Marketing Officer and Senior Vice President)는 서버링의 발전을 언급하였고 서버링의 발달에 있어서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GNSS, 레이저스캐닝, 클라우드, 텔레매틱스, 3D디자인과 같은 기술들은 이러한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언급함 제조분야의 생산성은 1960년대와 비교해 볼 때 2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건설 분야의 생산성은 지난 50년 간 하락해 왔으며,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선 건설 분야에서 자동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BIM이 자동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시간 관리의 발달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역설함

Amar Hanspal(Senior Vice President - Information Modelling & Platform Group of Autodesk)는 미래에 어떻게 공간정보기술이 사회기반시설과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함 인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식량 자원의 요구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라고 밝힘 공간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함께 사회기반 영역으로 온다면 사회기반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말함

Juergen Dold(President, Hexagon Geosystems)는 공간정보기술은 스마트 기업들이 의사 결정 절차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원동력으로 발전하였다고 함 그리고 제조, 사회기반, 안전 그리고 자원채취에 대한 Hexagon의 해결책을

자세히 설명함



▲ 총회1 좌장 Dr. Vanessa Lawrence 소개

▲ Jay Freeland의 발표

▲ Ewout Korpershoek의 발표

▲ 총회1 참석 모습

(3) 총회2

□ 일시 및 장소: 2014. 5. 6(월) 14:30,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Auditorium

□ 참석자: Prashant Shukle(Director General, Canada Centre for Mapping and Earth Observation), Dorine Burmanje(Chairman Executive Board, Cadastre, Land Registry and Mapping Agency, The Netherlands), Steven Hagan(Vice President Development for Server Technologies, Oracle Corporation), Actuary Ronaldo Ocampo-Alcantar(Vice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Geography and Informatics), Michael T Jones(Chief Technology Advocate, Google), Shannon Ulmer(Chief Technology Officer, Tax & Accounting, Thomson Reuters)

□ 주요 논의내용

총회2를 소개하면서 좌장인 Prashant Shukle(Director General, Canada Centre for Mapping and Earth Observation)는 이제 정보는 어디에나 있는 혼란의 시대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보는 경제와 사회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함

Dorine Burmanje(Chairman Executive Board, Cadastre, Land Registry and Mapping Agency, The Netherlands)는 반 고흐의 작품을 지도제작(mapmaking)과 네비게이션에 연결 지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총회를 시작함 독일의 예술가이자 발명가인 Dan Roose Gaarde가 어떻게 반 고흐의 그림 작품에서 고속도로의 야광선(glowing line)을 적용할 영감을 얻었는지 강조하면서, 새로운 공간정보 기술들은 시민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함

Steven Hagan(Vice President Development for Server Technologies, Oracle Corporation)는 geosmart기술이 시민 개개인에게 힘을 부여한다고 하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클라우드가 정부로 하여금 날씨에서부터 도시 내 오염수준, 방사능수준, 쓰레기 처리, 교통 상황, 지속 가능성, 도시화까지 다양한 내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함 정부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포함해서 투명성, 포괄성까지도 보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함

Actuary Ronaldo Ocampo-Alcantar(Vice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Geography and Informatics)는 시민들에게 정보의 힘을 주기 위해서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국가에서 UNGGIM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INEGI가 하는 일에 대해 언급함

Michael T Jones(Chief Technology Advocate, Google)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언제 누구라도 맥주를 살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Interactive map 서비스

인 Beer Hunter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여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Beer Hunter는 공간정보가 시민들에게 정보의 힘을 주는 새로운 방법 중 하나라고 말 하면서 worldwide sensor web과 연결성에 대해 강조함

Shannon Ulmer(Chief Technology Officer, Tax & Accounting. Thomson Reuters)는 상품거래나 세금부과와 같은 금융 분야에서 공간정보기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 전 세계의 선박 운항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로이터 버전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특정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항로, 운항 중 예상 가능한 변수-과 화물선을 추적하여 상품거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언급함



▲ 총회2 좌장 Prashant Shukle 소개

▲ Dorine Burmanje의 발표

▲ Steven Hagan의 발표

▲ Actuary Ronaldo Ocampo Alcantar의 발표

(4) 총회3

□ 일시 및 장소: 2014. 5. 7(수) 09:00,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Auditorium

□ 참석자: Hugo de Groff(Chief Scientist, Research and Innovation Unit, European Commission-DG Environment-D4, Governance, Information & Reporting Unit), Dr. Wendy Watson-Wright(Assistant Director General & Executive Secretary,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Christopher Cappelli(Director of Sales, Esri), Dr. Reinhard Schulte-Braucks(Head of Unit, Copernicus Infrastructure, DG Enterprise & Industry, European Commission), Maher Khoury(Senior Director, Channel EMEAR, Digital Gl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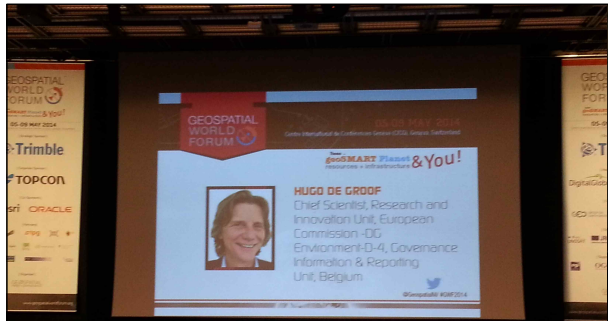
□ 주요 논의내용

Dr. Wendy Watson-Wright(Assistant Director General & Executive Secretary,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는 해양 과학 분야에서의 IOC의 업무, 관측, 자료 및 정보공유와 관련 서비스(국제 쓰나미 경고 시스템을 포함)에 대해 이야기 함 IOC의 목적은 건강한 해양 에코시스템과 서비스, 해양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책, 과학적으로 구축된 서비스를 통한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복원력 증강,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해양 과학 관련 주제들에 대한 증진된 지식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함

공간정보 산업에 비즈니스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불러오려는 노력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면서, Christopher Cappelli(Director of Sales, Esri)는 지도가 이러한 관심, 발견, 그리고 행동을 하게 한다고 이야기함 그는 비즈니스분야에서 지도그래픽(geographic)정보와 지도의 통합이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덧붙임

Dr. Reinhard Schulte Braucks(Head of Unit, Copernicus Infrastructure, DG Enterprise & Industry, European Commission)는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EU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Copernicus programme)을 소개함 과거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을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3억 유로의 편당을 확보했다고 말함

Maher Khoury(Senior Director, Channel EMEAR, Digital Globe)는 정확한 위성 정보와 빅 데이터 분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함 지도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추출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 의사결정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자원과 심지어 생명들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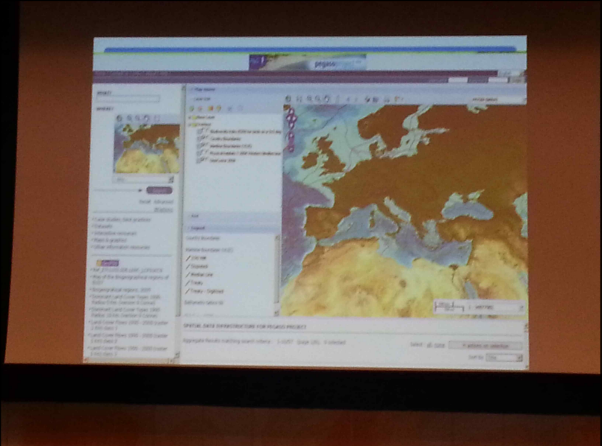
▲ 총회3 좌장인 Hugo de Groof 소개



▲ Christopher Cappelli의 발표



▲ Maher Khoury의 발표



▲ Dr. Wendy Watson Wright의 발표

(5) 총회4

□ 일시 및 장소: 2014. 5. 7(수) 16:00,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Auditorium

□ 참석자: Georg Gartner(ICA 회장), Carlo des Dorides(Executive Director, European GNSS Agency), Chris Gibson(Vice President, Trimble), Peter Hansford(Chief Construction Adviser, the London Government), Pascal Berteaud(Director General, IGN, the national mapping authority of France)

□ 주요 논의내용

Carlo des Dorides(Executive Director, European GNSS Agency)는 사업 전반적으로 GNSS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에서 GN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의 우수한 인력들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GNSS서비스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검증된 주요 분야로는 민간항공, 육로 교통, 통행료, 철로교통, 설문조사, 지도제작, 그리고 공공의 산업구조를 꼽을 수 있음

Chris Gibson(Vice President, Trimble)는 공간정보 관리는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지 및 운영단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프로젝트의 후반 단계에 가서는 투자자, 설비 운영자, 간접 계약자, 디자인 엔지니어, 사이트 엔지니어, 계약 당사자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정보의 통합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함

영국의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 하면서 Peter Hansford(Chief Construction Adviser, the London Government)는 정부가 공공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을 현 정부 임기 말까지 15~20퍼센트 줄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설명함 공공 건축 프로젝트에 BIM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4년 동안 20억 파운드 가량을 절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운송 시간을 절반으로 낮추고 오염물질 배출도 역시 절반가량으로 줄이는 내용을 설명함 스마트 건설은 영국 내 건설 분야의 변혁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정부와 민간 산업 간 탄탄한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Pascal Berteaud(Director General, IGN, the national mapping authority of France)도 프랑스의 공간정보와 BIM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활발한 활용을 주제로 이야기함 공간정보는 이동성, 교통수단, 실시간 정보, 교통 상황 시스템, 교통정리 자동화, 운송 구조의 유지 등 다양한 분야의 근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한 측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프랑스가 사회기반시설을 3D 모델로 성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고도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함



▲ 총회4 토론 모습



▲ 총회4 참석 모습



▲ Chris Gibson의 발표



▲ Chris Gibson의 발표내용

2. SDI Urban planning & Governance 포럼 참석

(1) SDI Urban planning 포럼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4. 5. 8(목) 09:00,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Presentation Hall
- 참석자: Milan Konecny(Masaryk University, Czech Republic), 김대중(KRIHS, Korea), Franko Jhoner(Legal Consultant, Indonesia), Dheeraj Kumar(India) 등
- 주요 논의내용

SDI Urban planning 포럼에서는 Milan Konecny(Masaryk University)가 좌장을 맡고, 각국의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활용 사례들을 소개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 스위스의 Hans-Jorg Stark 교수는 공간정보 서베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관점의 도시계획에 대해 발표하였고, 국토연구원 김대중 박사는 한국 3.0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NSDI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융복합하여 이를 수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설명하였음



▲ 좌장인 Milan Konecny



▲ 포럼 진행 모습



▲ Franko Jhoner의 발표



▲ Dheeraj Kumar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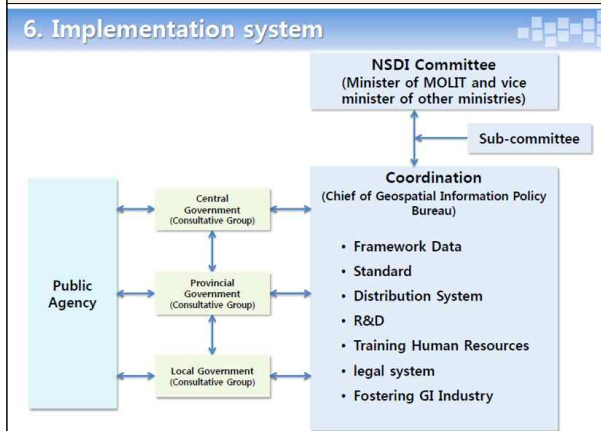
▲ 김대중 박사의 NSDI 발표

2. Current Status of NSDI in Korea

- Korea Gov. has built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NSDI) since 1995
 - to prevent accidents such as LNG gas explosion due to information silos
 - to make public services and decision making better
- Current aims of NSDI are for creative economy and government 3.0

1995	2000	2005	2010	2013
1st NGIS Creation of Digital Spatial Data Digital topographic maps, cadastral maps, thematic maps	2nd NGIS Expansion of Infrastructure GIS applic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civil service KLIS, UPIS	3rd NGIS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Advanced GIS applications KOPSS	4th NSDI Integration & sharing Integrated geospatial data system sync from data sources. www.Vworld.kr	

▲ NSDI 발표 내용 1



▲ NSDI 발표 내용 2



▲ NSDI 관련 질의응답

(2) Governance 포럼 개최 및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4. 5. 8(목) 13:30,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Presentation Hall

□ 참석자: 김대중(KRIHS, Korea), Omar Al Shaiba(GIS 관리부, UAE), Siow Suan Neo(지방정보도시국, Malaysia), G.P.Singh(국가정보센터, India) 등

□ 주요 논의내용

Governance 포럼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김대중 박사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각국에서 안전 및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국가의 운영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김대중 박사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수백 개의 국가공간정보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지에 대해 발표하였고, Siow Suan Neo는 말레이시아에서 GIS 웹을 기반으로 범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안전도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했으며, G.P.Singh는 마시는 물에 대한 위치 지도, 홍수로부터 안전한 위치를 찾는 안전 지도에 대해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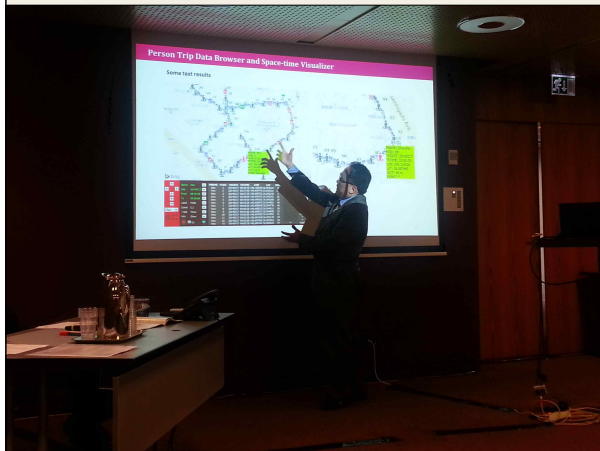
포럼 마지막엔 한국에서 8월에 개최될 '2014 국토스마트엑스포'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각국의 참가자들이 참여를 희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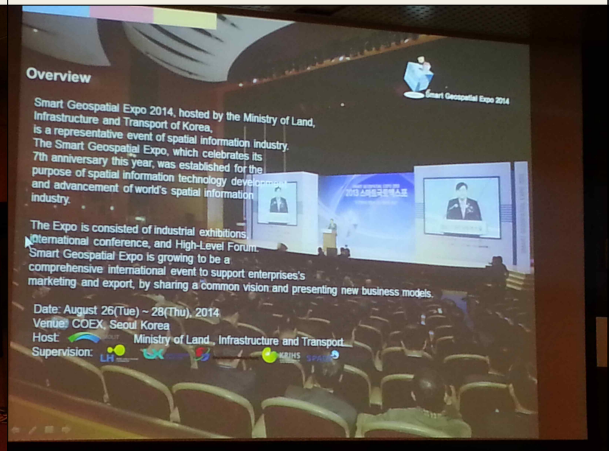
▲ 좌장 김대중 박사의 포럼 진행



▲ Omar Al Shaiba의 발표



▲ Siow Suan Neo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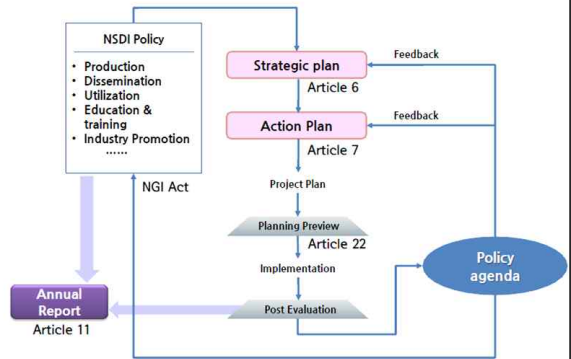


▲ 국토스마트엑스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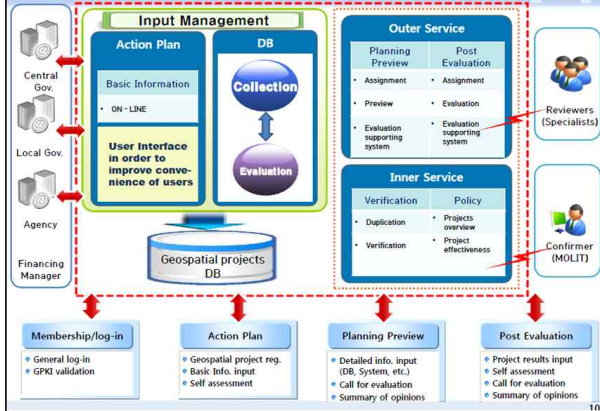
▲ 김대중 박사의 발표

4. Process of GI Policy Imple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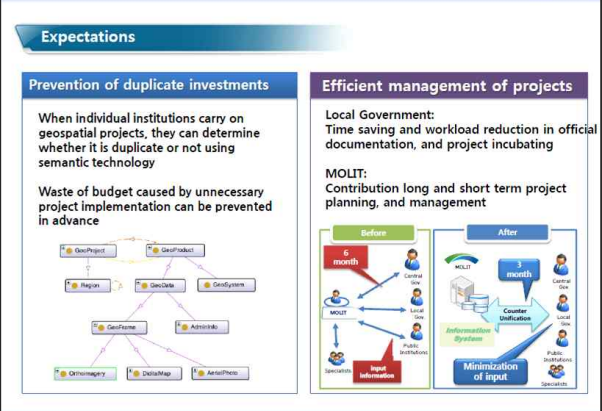
▲ 공간정보시스템 총괄 사업 발표 내용 1

7. Information Sharing and Management System



▲ 공간정보시스템 총괄 사업 발표 내용 2

7. Information Sharing and Management System



▲ 공간정보시스템 총괄 사업 발표 내용 3

3. 국내 우수공간정보 사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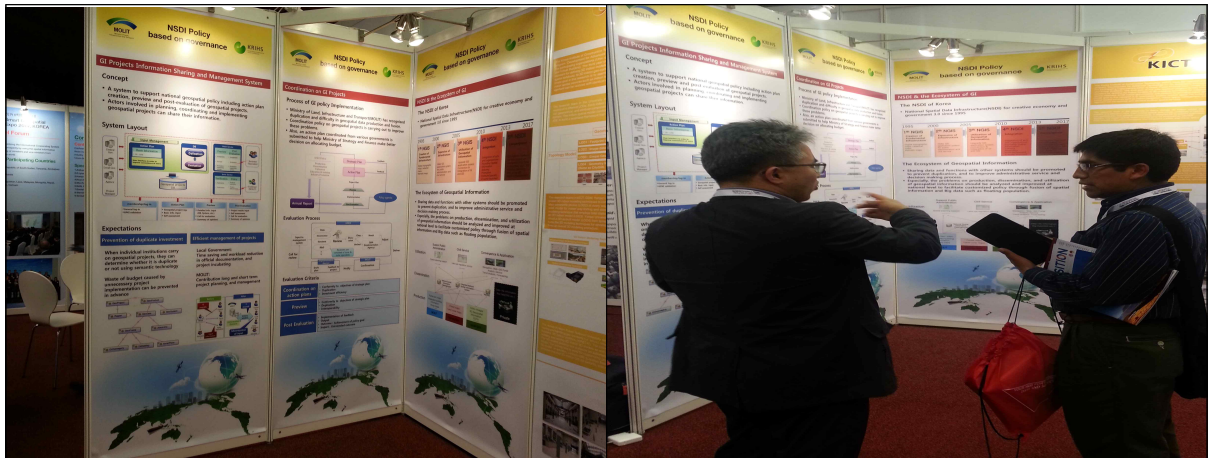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일시 및 장소: 2014. 5. 6(화)~9(금) 09:00~18:00,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

□ 주요 홍보 개요

국내 공간정보기업들이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인 Korea Pavilion을 마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모여서 전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내공간정보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함

전시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스마트국토엑스포 사무국,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가하였고, 민간 기업은 가이아쓰리디, 이지스, 그린에코스 3곳이 참여하였음



▲ 공간정보총괄사업 홍보 패널 전시

▲ 페루의 NSDI 교육 요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홍보 패널 전시



▲ 국토스마트엑스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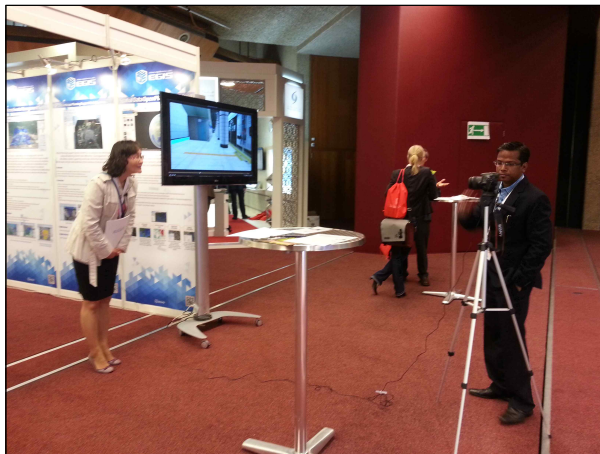
□ 공공부문 홍보 성과

국내 공간정보정책의 우수사례인 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LURIS) 전시 및 홍보를 통해, 해외 정책자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역시 구축된 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페루에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수립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여 국토연구원의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교육 이수를 연결하여 주었고, 가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구축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이를 각 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요청하는 등 국가 간의 협력적 교류가 진척됨

□ 민간부문 홍보 성과

많은 전시 관람자들이 3D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러 홍보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가진 기술, 사업수행력 등을 알림으로써 사업 체결 등의 효과를 누림 이밖에 8월에 개최될 스마트 국토엑스포 행사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각국의 전시참가자들로부터 참석을 희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홍보매체와 인터뷰하는 이지스



▲ 한국관을 찾은 각국 참가자들 모습



▲ 회사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3D가이아



▲ 한국관 전시 담당자들

4. 시사점

□ 공간정보 활용의 필요성 공감 및 지속적 글로벌 협력 방안 필요

많은 참석자들이 글로벌 이슈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간정보 활용을 주목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은 Geospatial World Forum 참석을 통해 글로벌 공간정보사회에 우리 원의 축적된 경험을 알리고 관련 공간정보 전문가들과 협력적 관계를 넓히고자 하였음

Geospatial World Forum에서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와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그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던 이슈들을 세계 석학, 정책자 및 현장 전문가들과 공유하였으며, 수집한 새로운 동향 및 정책 현안을 바탕으로 보다 경쟁력 높은 미래 공간정보정책을 발굴하는데 기여함

Geospatial World Form을 통해 글로벌 공간정보 커뮤니티의 형성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국토연구원이 글로벌 공간정보정책 리더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함

향후 2014년 Geospatial Asia Forum, 2015년 Geospatial World Forum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단순 참가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글로벌 협력 관계를 맺을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민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

국토연구원은 한국전시관을 통합·운영하고 우리원이 수행한 연구사례를 전시하였으며 국내 공간정보기업체의 해외전시를 지원하였음

대부분 규모가 작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해외전시 참가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국토연구원이 한국전시관을 통합·운영하여 함께 참여함으로써 해외 전시에 대한 경제적, 인적, 시간적 부담을 낮추었고, 인지도가 낮은 한국 공간정보기업의 기술력을 보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

세미나를 통해 한국 공간정보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함(3D 가이아, 이지스)으로써 공간정보기술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기업체의 홍보지원(불어 통역지원)을 통해 한국전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해외관계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음

제품설명요구, 다국어 설명서, 현지구매처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참가 전에 미지근하던 기업 및 기관들이 전시 참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며, 내년 전시에도 참가를 희망함)

□ 해외 업체의 전시방법 벤치마킹 필요

대부분의 해외 업체들은 전시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전시내용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략한 내용을 전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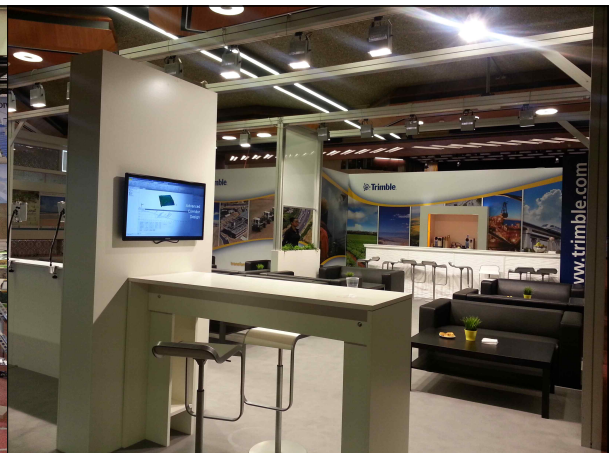
국내의 홍보자료들은 홍보문구와 그림들로 가득 차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고, 전시물 위주의 공간구성으로 서로 마주보고 의사소통할 공간이 부족하였음

이에 해외 업체의 전시방법을 벤치마킹하여 해외전시에서는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또한 전시 참가자가 다년간 전시를 참가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대한 인적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어, 사업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사업 전반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적용한 체계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함



▲ 간략하고 효과적인 전시



▲ 커뮤니케이션 공간 확보 필요



▲ 다양한 언어의 제품 홍보물



▲ 지속적인 참가로 인적네트워킹 구축